

## 皮膚搔痒症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신정철<sup>1</sup> · 나건호<sup>1</sup> · 이동현<sup>1</sup> · 류충열<sup>1</sup> · 채우석<sup>1</sup> · 윤여충<sup>1</sup> · 조명래<sup>1</sup>

<sup>1</sup>동신대학교부속한방병원 침구과 교실

### A Case Report of Pruritic Dermatoses

Jeong-Cheol Shin<sup>1</sup>, Gun-Ho Na<sup>1</sup>, Dong-Hyun Lee<sup>1</sup>, Chung-Ryul Ryu<sup>1</sup>,  
Wu-Suk Chae<sup>1</sup>, Yeo-Choong Yoon<sup>1</sup>, Myung-Rae Cho<sup>1</sup>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Dong-Sh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Hospital, Dong-Shin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 The main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medical care about Pruritic Dermatosis

**Methods:**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Acupuncture, herb medicine, Herbal-acupuncture. we evaluated the change of symptom through Visual Analogue Scale(VAS) and photos of the skin

**Results:** After 10 times of treatment, There was remarkable improvement in symptoms of the patient.

**Conclusion:** We confirmed the superiority of Korean traditional medical care about Pruritic Dermatoses. We think that we must research effective remedy through many more case reports.

**Key words:** Pruritic Dermatoses, Korean traditional medical care, Effective remedy

### I. 緒 論

瘙痒症은 많은 皮膚疾患과 전신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편의상 瘙痒症은 긁거나 비벼대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불쾌한 감각이라고 정의된다.<sup>1)</sup>

瘙痒症을 없애기 위해 심하게 긁거나 문지르는 경우 긁은 흔적, 홍반, 균열, 궤양, 팽진, 색소침착 등의 징후가 나타난다. 만성 瘙痒症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화는 태선화인데 이것은 정상 통통 한계치 이상으로 심하게, 지속적으로 문지르거나 긁어서 皮膚가 가죽모양으로 두꺼워진 상

태를 말한다.<sup>1)</sup>

瘙痒症은 표피 아래의 미세한 무수신경섬유 말단부에서 인지되어 lateral spinothalamic tract을 통하여 뇌의 시상 및 감각피질로 전달된다. 소양감은 가벼운 접촉, 온도의 변화, 정신적 자극과 같은 정상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으며, 화학적, 기계적, 전기적 자극과 온열자극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원인으로는 크게 皮膚 자체의 이상으로 인한 경우와 내과적 문제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sup>2)</sup>

한의학에서는 皮膚瘙痒症을 “風瘙痒”, “風痒”, “痒風”, “身痒”的 범주로 보고 있으며, 원인에 대하여 《素問·至真要大論》에서 “諸痛痒瘡，皆屬於心”이라고 內因의 범주에서 기록된 이래 역대문헌에서는 內因과 外因으로 대별하여 치료를

·교신저자: 신정철,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동신대학교광주한방병원,  
Tel. 062-350-7280, E-mail : fire-sjc@hanmail.net

·접수: 2005/08/ ·수정: 2005/09/ ·체택: 2005/09/20

논하고 있다.<sup>3)</sup>

皮膚瘙痒症은 현대에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과 식생활의 부조화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게 되었으나 질환의 근본적 치료보다 보습제나 皮膚 연고제와 같은 대증적 요법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며, 임상적 보고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저자는 상체부위의 皮膚瘙痒感, 热感을 주소로 来院한 皮膚瘙痒症 환자를 痰濕熱로 變證하고 韓藥, 鍼, 藥鍼을 사용하여 현저한 증상의 호전을 보였기에 이에 報告하고자 한다.

## II. 症 例

1. 姓名 : 강 0 0 (F/27)

2. 診斷 : 皮膚 搔痒症

3. 主訴症 : ① 上體部位 皮膚 瘙痒感 (목 - 흉추 5번 높이)  
② 긁은 후 爪痕, 血痂,  
③ 热感  
④ 自汗(上體 尤甚)

4. 發病日 : 2003년 여름

5. 家族歴 : 別無

6. 過去歴 : ① 환절기마다 알러지성 비염 발생하나 別無治療

7. 現病歴 : 現 27 歲의 喪활한 성격의 건장한 체형의 女患으로 平素 飲酒(1-2回/週, 맥주 3-4 병/回), 別無吸煙, 別無嗜好食 해오심. 上氣 患者는 平素 환절기마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해 오던 중 2003년 여름 상체부위 皮膚 瘙痒感(목 - 흉추 5번 높이), 긁은 후 爪痕, 血痂, 热感, 自汗(上體 尤甚) Sx 發하여 別

無治療하였으나 가을로 접어들면서 자연호전의 경과를 보였다. 2004년 6월 증상 재발하여 역시 別無治療하였으나 가을에 자연호전의 경과를 보았다. 2005년 4월 증상 다시 재발하였으나 과거 증상에 비해 상태가 더 심하여 보다 적극적 한방치료 받고자 2005년 5월 6일 본원 침구과에 내원함.

8. 韓方四診 : 上體部의 皮膚는 濕潤함, 眼周圍 色暗, 面色淡白, 脈沈微數無力, 舌質淡紅苔白, 腹中 中脘 左天樞 脾俞 胃俞 壓痛

## 9. 漢方治療

### 1) 鍼治療

- ① 鍼治療에 사용된 鍼은 천진동방의료용품에서 제작한 0.30 x 30 mm 1回用毫鍼을 使用.
- ② 2-3回/週 來院時마다 豊隆, 中脘, 復溜, 陰陵泉, 曲池 穴, 地溝 穴法으로 刺鍼하였으며 捻轉補瀉와 九六補瀉의 手技法을 사용하였다.
- ③ 留鍼시간은 20 분으로 하였다.

### 2) 藥物治療

- ① 2005. 5. 6 - 2005. 5. 12 : 正傳加味二陳湯 加味 (山楂 6g, 白朮, 半夏(薑製), 蒼朮, 川芎, 大棗, 香附子, 生薑, 黃芩 각 4g, 陳皮, 白茯苓, 神麴(炒) 각 3g, 麥芽(炒), 砂仁, 甘草(灸) 각 1.5g)
- ② 2005. 5. 13 - 2005. 5. 23 : 正傳加味二陳湯 加味 (山楂 6g, 白朮, 半夏(薑製), 蒼朮, 川芎, 大棗, 香附子, 生薑, 黃芩, 黃芪 각 4g, 陳皮, 白茯苓, 神麴(炒) 각 3g, 麥芽(炒),

## 皮膚搔痒症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砂仁, 甘草(灸) 각 1.5 g)

- ③ 2005. 5. 24 - 2005. 6. 3 : 消風清營湯 加味 (滑石, 連翹 각 6 g, 川芎, 當歸, 乾地黃, 防風, 白芍藥, 荊芥, 桔子, 黃芪, 香附子, 砂仁 각 4 g, 黃芩(酒炒) 甘草 각 3 g, 薄荷 2 g, 蟬退 1 g)

### 3) 藥鍼 治療

- ① 2-3 回/週 來院時마다 黃連解毒湯 약침액 을 0.5 cc 인슐린 주사기(30 gauge, BD consumer Healthcare, 미국)를 이용하여 肩井穴에 0.25 cc를 각각 시술하였다.
- ② 본 증례에 사용된 약침액은 대한약침학회에서 黃連解毒湯 약제(黃連, 黃芩, 黃柏, 桔子)를 수증기 증류 냉각식 조제법에 의해 제조하였다.<sup>4)</sup>

## 10. 평가방법

### 1)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소양감의 객관화를 위하여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이하 VAS)를 사용하였고, 처음 내원당시의 소양감을 10, 소양감이

없는 상태를 0으로 하여 통원치료 중 환자 스스로 표현한 소양감의 상태를 기재하였다.

## 11. 治療經過

- ① 5월 13일 3번째 내원하였을 때 소양감은 VAS 5 정도의 호전을 보였다. 특히 잠자기 전에 심하던 소양감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소 상체에 집중되던 自汗 증상과 熱感도 호전된 느낌을 보였다. 하지만 皮膚上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② 5월 18일 5번째 내원하였을 때 소양감이 VAS 3 정도로 꾸준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체부의 自汗증세도 절반정도로 줄어든 느낌을 받았으며 汗出시 발생하는 瘙痒感 역시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다. 皮膚上에 血痂는 줄어들었으나 皮膚가 약간 비후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 ③ 5월 24일 7번째 내원하였을 때 내원전 이틀동안 음주(맥주 2-3 병/回)하고 과로한 후 전신 피로감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口內炎이 발생하였고 소양감이 또한 더 심해짐을 느꼈다고 호소하였다. 내원시 소양감은 VAS 5를 나타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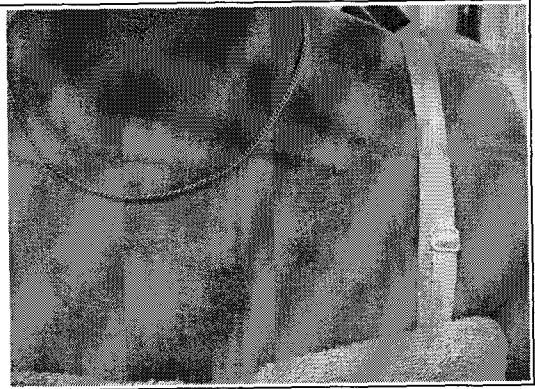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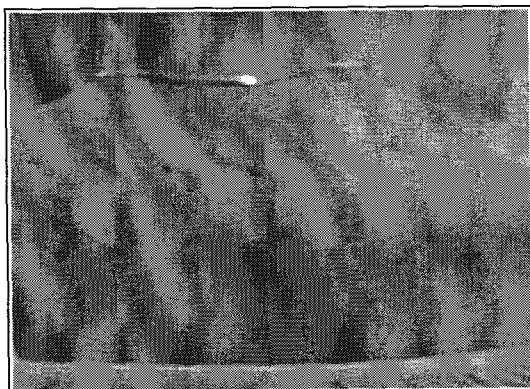


Fig. 1. 2005-5-6

自汗症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④ 6월 3일 10번째 내원하였을 때 소양감은 거의 사라져 VAS 0-1 정도를 표현하였으며, 自汗症과 热感은 활동량이 많거나 날씨가 더울 때 발생하며 본인이 충분히 정상적인 범위의 생리적인 증상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상태를 보였다. 皮膚는 약간의 茶色化와 그로 인한 皮膚色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고, 초기 내원시 濕潤한 皮膚는 보다 건조된 양상을 보였다.

皮膚變化의 양상은 Fig. 1. 은 5월 6일 내원 당시이며, Fig. 2.는 5월 20일, Fig. 3.는 6월3일의 皮膚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III. 總括 및 考察

瘙痒症은 긁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독특한 감각이다. 일차적인 감각자극은 척수시상통로(spinothalamic tract)의 무수신경섬유(unmyelinated C fiber)에서 인지된다. 痒痒症은 피질을 포함한 중추요소에 의해서 조절된다. 痒痒症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히스타민에 의해서 유발되며, 화학매개 물질로는 브라디키닌(bradykinin), 뉴우로텐신(neurotensin), 시크리틴(secretin), 서브스탄스 P(substance P) 등이 히스타민을 분비시킨다.<sup>5)</sup> 또한 히스타민 효과를 내는 물질로는 prostaglandin E, enkephalins, pentapeptide, kinins, protease 가 있다.<sup>6)</sup>



Fig. 2. 2005-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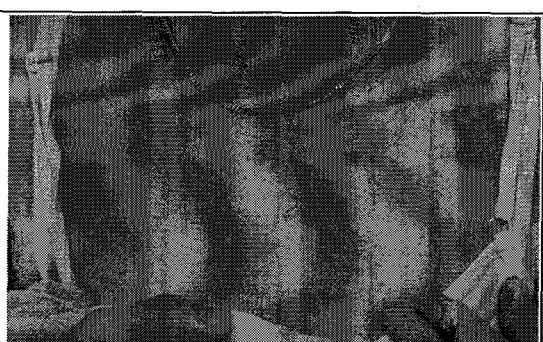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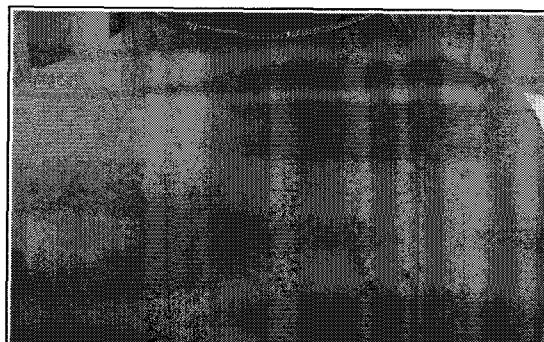


Fig. 3. 2005-6-3

瘙痒症은 일반적으로 외부자극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도 있으나, 외부물질과의 가벼운 기계적 접촉, 주위의 차거나 더운 온도의 변화, 화학적 물질이나 전기적 자극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皮膚疾患이나 내과적 또는 신경과적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瘙痒症은 매우 주관적인 감각으로서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같은 사람에게서도 동일한 자극이 때에 따라서 매우 다른 정도의 소양감을 일으킬 수 있다. 정신적 상태 특히 긴장, 불안, 공포에 의해 심해질 때가 많으며, 하루 종에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가장 瘙痒症이 심하다. 신체 부위 중 눈꺼풀 주위, 콧구멍, 귓구멍, 항문, 성기 및 그 주변부위가 瘙痒症에 대해 가장 민감한 부위이다.<sup>1)</sup>

전신 瘙痒症의 대부분은 皮膚가 건조하여 발생하며 이 때는 자연적이거나 기후 조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여러 질환에서 발생하는데, 개선증, 포진상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항문 및 외음 瘙痒症, 한진, 곤충교상, 이증, 접촉 피부염, 약진, 두드러기, 임신증 두드러기양 발진, 견선, 편평태선, 만성 단순태선, 박탈피부염, 모낭염, 일광화상, 수포성 유천포창, 섭유유리 피부염 등이 있다.<sup>5)</sup>

皮膚疾患에 의한 瘙痒症과 전신질환에 동반된 瘙痒症 모두 瘙痒症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皮膚疾患은 많지 않으므로 증상에 따른 일반적인 치료법이 중요하다.

瘙痒症은 신체주변의 온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얇고 가벼운 옷과 침구를 사용하며 칼라민 로션이나 1 %멘톨 로션으로 皮膚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양모과 같은 자극적인 직물에의 노출을 피하고 긁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스트레스와 같은 정

신적 긴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커피, 흥차, 쇼콜렛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과 theobromines, 술, 콜라 등은 瘙痒症을 악화시킨다. 노인에서 잘 나타나는 皮膚乾燥에 의한 瘙痒症은 목욕을 자주하는 것을 피하고 목욕후에는 보습제를 전신에 바르는 것이 좋다.<sup>1)</sup>

부신 피질 호르몬의 전신투여 또는 국소도 포가 치료에 도움이 되며 특히 염증이나 태선화로 인한 瘙痒症에 효과적이다. 0.5 %-1 % 페놀로손과 프라목신은 국소 마취제로 瘙痒症을 완화시킨다. Caps-aicin 연고는 감각신경말단의 신경펩타이드를 소모시키며 다수의 국소적 만성 搔痒性 皮膚 병변에 효과적이다.<sup>1)</sup>

한의학에서는 《諸病源候論》<sup>7)</sup>에 皮膚 瘙痒症을 “風瘙痒”, “風痒”, “身痒”的 범주로 보고 있으며, 濕熱이 皮膚 위에 몰리고 疏泄하지 못하거나 血熱로 인해 血이 虛해지고 肝氣가 旺盛하므로 風이 발생하여 津液을 결집시켜 皮膚가 건조해지는 것을 가리킨다. 또는 衛氣가 본래 虛하고, 膜理가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風邪가 皮膚에 침입하여 일으킨 搔痒症이다. 치료는 清熱化濕, 祛風 혹은 養血潤燥, 養血平肝한다.<sup>8)</sup>

한의학적 원인론에는 《素問·至真要大論》에서 “諸痛痒瘡，皆屬於心”이라 하여 內因의 범주로 기재한 이후 孫思邈이 “痒症不一……血虛皮膚乾庠者……有脾虛身痒”이라하여 다양하게 內因을 분류하였으며, 《傷寒論》에서는 外感 風寒에 의한 外因의 범주로 보았고, 그 후대에 外因과 內因을 모두 제시하는 여러 의가들이 등장하였다. 역대 제가들의 原因과 治法, 治方을 정리하여보면 크게 外因에는 外感風寒과 外感風熱로 消風散寒, 身冷祛風의 治法에 桂枝麻黃各半湯, 消風散을 자주 사용하였고, 內因에는 血虛는 滋陰補血, 養血潤燥祛風의 治法으로 當歸飲子 養血潤膚飲 地黃飲子를, 血熱, 風熱에는 清熱

涼血祛風의 治法으로 防風通聖散, 消風散을 활용하였고, 血瘀에는 活血化瘀祛風의 治法으로 活血祛風湯을 사용하였으며, 濕熱에 清熱除濕의 治法으로 龍膽瀉肝湯등이 자주 활용되었다.<sup>9)</sup>

본 증례의 환자는 건장한 체형의 女患으로 平素 1-2 回/週, 맥주 3-4 병/回의 飲酒습관을 갖은 분으로 환절기마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해 오던 중 2003년 여름과 2004년 여름 상체부위 皮膚 瘢痒感(목 - 흉추 5번 높이), 긁은 후爪痕, 血痂, 热感, 自汗(上體 尤甚) Sx 發하여 別無治療해도 가을로 접어들면서 자연호전의 경과를 보인 경우로 2005년 4월 증상 다시 재발하였으나 과거 증상에 비해 상태가 더 심하여 보다 적극적 한방치료 받고자 내원한 상태였다. 韓方四診 上 上體部의 皮膚는 濕潤함, 眼周圍 色暗, 面色淡白, 脈沈微數無力, 舌質淡紅苔白하고 腹中 中脘 左天樞 脾俞 胃俞 壓痛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름에 증상이 上體로 發하는 점과 한방四診上의 결과를 토대로 濕熱에 痰이 혼착된 것으로 辨證을 하였고, 臟腑로는 脾胃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鍼治療로는 祛濕化痰을 목적으로 和胃氣, 化痰濕하는 豐隆과 和胃氣, 化濕滯, 理中焦 調升降의 효능이 있는 中脘, 疏調玄府, 利導膀胱, 祛濕清滯, 滋腎潤燥祛濕 하는 復溜, 運中焦, 化濕滯, 調膀胱, 祛風冷하는 陰陵泉을 取穴하였으며, 消邪熱, 祛風濕의 穴性<sup>10)</sup>이 있어 皮膚病에 다용되는 曲池를 瀉하였고, 三焦經의 火穴인 地溝를 瀉함으로써 火熱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韓藥治療는 초기에 健脾시키고 祛痰, 祛濕하며 清熱을 겸할 목적으로 正傳加味二陳湯에 清熱작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黃芩을 加味하였다. 正傳加味二陳湯은 越鞠丸에서 桔子를 去하고 二陳湯을 合하고 消導行滯하는 山楂 神麴 砂仁 麥芽를 加味한 方제로 볼 수 있다. 越鞠丸은 六鬱

을 治하는 기본 方으로 食鬱을 治하고 二陳湯은 痰飲을 治하는 方으로 白朮을 加하여 燥濕健脾 작용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본방은 越鞠丸에서 热鬱이 심하지 않으므로 桔子를 去하고, 食積 혹은 痰飲을 없애기 위하여 二陳湯에 白朮을 加味하여 健脾燥濕시키므로 脾胃의 運化기능을 좋게 하는 한편, 적체된 痰, 濕의 鬱을 越鞠丸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解하면서 山楂 神麴 砂仁 麥芽를 加하여 食積을 消導케한 方제이다.<sup>11)</sup>

5월 13일부터는 搔痒症에는 호전을 보였으나 皮膚上에는 긁은 후 발생한爪痕의 호전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托毒生肌하는 효능<sup>12)</sup>이 있는 黃芪를 추가로 加味하였다.

5월 24일에는 22일부터 口內炎이 발생하였고, 觸診上 中脘 및 脾俞 胃俞의 壓痛이 경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아있는 搔痒症에 초점을 맞춰 血分 燥熱로 变증하고, 血燥皮風으로 頭, 身, 四肢에 瘡疹이 發하여 全身瘙痒하며 특히 야간에 瘢痒으로 就眠困難한 데 사용되는<sup>13)</sup> 消風清營湯에 理氣之劑인 香附子와 砂仁을 加味하고 清熱작용의 강화를 목적으로 桔子를 加하고 托毒生肌하는 黃芪를 加하여 투여하였다.

藥鍼治療로 清熱 燥火 解毒의 효능<sup>11)</sup>이 있는 黃連解毒湯을 藥鍼液으로 제조하여, 肩部의 대표혈로서 膽經, 三焦經, 胃經, 陽維脈과 交會穴인 肩井穴에 시술함으로써 火熱로 인해 발생하는 搔痒症과 热感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이상의 치료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瘢痒感은 치료 시작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치료 과정 중 飲酒를 한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환자의 痘湿熱로 인한 상황에서 맥주의 섭취가 濕熱을 더욱 助長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치료과정에 있어서 환자의 痘因에 따른 음식, 생활 등의 주의사항에 대한 보다 적극

## 皮膚搔痒症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自汗症과 热感은 활동량이 많거나 날씨가 더울 때 발생하며 본인이 충분히 정상적인 범위의 생리적인 증상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상태를 보였다. 皮膚는 약간의 菖癬化와 그로 인한 皮膚色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고, 초기 내원 시 濕潤한 皮膚는 보다 건조된 양상을 보였다.

본 증례를 통하여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과 식생활의 부조화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쉽게 주위에서 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皮膚搔痒症에 대해 한방치료의 유효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보다 많은 임상적 연구와 증례보고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結論

저자는 上體部位의 皮膚搔痒感(목 - 흉추 5번 높이), 긁은 후 爪痕, 血痂, 热感, 自汗(上體尤甚)을 주소로 來院한 皮膚搔痒症 환자를 痰濕熱로 變證하고 韓藥, 鍼, 藥鍼을 사용하여 현저한 임상효과를 얻었다.

## 參考文獻

1. 대한피부과학회간행위원회. 피부과학. 서울 : 만리문화사. 2001 : 91.

2.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일차진료에서 흔히 접하는 임상적 문제들. 서울 : 군자출판사. 1997 : 408-9.
3. 이정용. 피부소양증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998 ; 11(1) : 219-39.
4. 대한약침학회편. 약침요법 시술 지침서. 서울 : 한성인쇄. 1999 : 13-4.
5. 전국의과대학교수. 임상의학 오늘의 진단과 치료. 서울 : 한우리. 1999 : 181-2.
6. 안성구, 이승현. 핵심피부과학. 서울 : 고려의학. 1999 : 33-7.
7. 소원방. 제병원후론교석.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1983 : 170-72.
8. 한이수, 성기원, 김상옥, 정화갑. 당뇨를 동반한 중풍환자의 피부 소양증에 대한 방풍통성산 투여 2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3 ; 24(2) : 915-21.
9. 최요섭, 김태경, 김정열, 강경숙, 류순현, 배형섭. 중풍환자의 피부 소양증에 소풍산 투여 2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2 ; 23(2) : 282-7.
10. 최용태외. 침구학 상,하. 서울 : 집문당. 1998 : 330-2, 387, 407, 543, 730.
11. 윤용갑. 동의방제와 처방해설. 서울 : 의성당. 1998 : 325.
12.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 교수. 본초학. 서울 : 영림사. 1998 : 534-5.
13. 金永勳. 晴崗醫鑑. 서울 : 성보사. 1990 : 366.